

민주,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에 “인사검증라인 문책해야”

정순신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에 사의 표명
“사의 표명 당연...尹, 인사 검증라인 문책”
‘野’ 공세는 연좌제 興에 “가해 정당 되나”
“학교 폭력 옹호 아니라면 진심 사과해야”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일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검사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다”며 “윤석열 대

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사과하고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순신 전 검사는 그

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연좌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말도 안 되는 꾀변”이라며 “국민의힘도 가해 정당이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도 학교 폭력 행위를 옹호하

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피해 학생과 국민께 사죄하라”며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국수본부장 지원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수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안철수, 김기현 겨냥 “양지만 찾는 자...공천 학살 할 것”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6일 ‘진윤계’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실 뜻만 따르는 대표”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분열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힘지가 두려워

SNS서 金 겨냥해 “대통령실 뜻만 따르는 대표”

양지만 찾는 자들은 정권 교체에 공이 있는 분들의 자리를 뺏기 위해 공천 학살을 할 것”이라며 울산에 지역구를 둔 김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공천 관리할 수 있는 대표가 있어야 정권 교체에 공이 있는 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줌으로써 당 분열을 막고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는 후보와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후보의 싸움”이라며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는 대표가 되어 한다. 대통령 뜻만 따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국민이 직

접 부딪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파동을 막는 것이 승리의 필요조건이라면 중도와 2030세대 지지를 얻는 것은 승리의 충분조건”이라며 “그건 안철수가 가장 잘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방법 가장 잘 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저는 수도권에서 70석 확보로 170석 압승을 약속했다”며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우리도 최전선에서 수도권 전진을 승리로 이끌 총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수도권 대표를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민주 “이재명, 당헌 80조 적용대상 아냐

“무자비 사법 사냥” 등 맹비난 쏟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날선 공세를 벌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 관련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소 후에도 현 체제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등 맞불을 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 독재 정권이 총, 칼 무력으로 억압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폭력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독재가 찍으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가 됐고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며 “칼날은 사회정의가 아닌 반대 세력과 정적 제거에 쓰인다”고 했다. 아울러 “가짜 범치의 탈을 쓰고 사법 사냥과 사법 살인을 자행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나아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 응원할 것이며 단호, 엄중하게 검사독재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탄압, 정치 탄압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 직무 정지를 다루고 있다. 즉, 이 대표의 경우엔 탄압에 해당하는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직무 정지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던 방향의 설명으로 읽힌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 또한 사실관계, 정치 탄압 측면에서 예외 규정 적용 소지를 살펴봐야 한단 식의 언급이 있기도 했다. 방탄국회 지적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의 중요한 기준은 탄압의 징후가 있는가 여부”라며 “검사독재 상황이 흐르고 있고 이 대표 상대 수사는 무차별, 편파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의 경우 50억 클럽 당사자들은 수사하지 않는 불공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건 탄압이며 불체포 특권을 작동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표결 후 고강도 대정부 공세를 예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부결 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먼저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비리와 국정농단에 대해 집중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및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며 “울산, 경기 경청투어를 아직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재개하려 한다”고 했다.

정성호기자

황교안, ‘땅투기 의혹’ 김기현 사퇴 압박 “尹대통령과 나라 위한 것”

黃, 金 ‘울산 부동산 의혹’ 거듭 제기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6일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의 울산 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은 김 후보 땅과 똑같은 입야”라며 “그 소유자는 이미 2016년에 그 땅을 70개로 쪼개서 평당 44만1000원에 매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쪼개서 판 회사는 (주)명성에

셋인데 2018년에 이미 회사 문을 닫았다”며 “김 후보는 그 땅이 마치 쓸모없는 땅이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땅에 왜 사람들이 몰려와서 땅을 쪼개서라도 사려고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황 후보는 주장의 근거로 김 후보의 토지 옆에 붙어 있는 입야 소유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제 거짓말을 그치고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옹기있게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다른 글을 통해선 “제가 김 후보의 울산땅 문제를 들춰냈다고 원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저는 지난 15일 TV토론회에서 처음 김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그 이전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에서 김 후보를 겨냥한 사퇴 공격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오직 우리 당과 윤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